

等이 무던히 正確하다 하였으나 間或 方位에 있어서 一定한 差異가 있음을 볼 수 있으니 例를 들면 慶尙道の 恭原圖와 軍威圖를 보면 北向의 方位가 西로 九〇度 가량 回轉되었고 南海圖를 보면 南向의 方位가 北으로 一八〇度 倒置되었으며 忠淸道の 唐津圖 亦是 北向의 方位가 西로 九〇度 가량 倒轉되었고 陰城圖 木川圖 結城圖 等도 西向 方位가 北으로 九〇度 가량 差異져서 그러저 있는 바 이는 大部分 主山을 上方으로 잡아 透視한 關係로 自然的으로 생긴 視點의 差異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狹小한 紙面에 그것도 半葉으로 된 片面에 所期의 目的을 達成 하려면 이 程度의 伸縮性있는 方位設定은 不可避하였으리라 생각된다.

本輿圖는 序나 跋이 全無하여 製作年代를 正確히 밝힐 수는 없었으나 京畿道の 楊州圖에 보면 景宗의 懿陵 景宗四年 一七二四 A·D·에 薨去) 이 나타나 있고 景宗元年(一七二二)에 死去한 英祖 東宮時의 後宮이 었던 靖嬪 李氏의 墓가 보이는데 反하여 高陽圖에 보면 英祖三三年(一七五七) 薨去한 英祖 貞聖王后徐氏의 弘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本輿圖의 製作은 英祖元年에서 英祖三三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大差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本輿圖 京畿總圖 首張의 右側 上隅에 「洪魯軒圖書記」라는 長方形朱印이 보이며 每册末張 左側欄下에는 「臣印洪麒」와 「小案一字端三」이라 새겨진 두個의 方形朱印이 各各 보이거 同時 洪氏藏書로도 屬했던 일이 있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 洪城高山寺 佛像의 腹藏調査

文 明 大

여기에 말하고자 하는 佛腹藏은 지난 一九六七年 二月 一三、二四日 間 이 方面에 留意하고 있는 姜昔泉스님이 高山寺(忠南洪城郡結山面)의 一木佛에서 調査했던 것으로 당시의 調査記錄과 그 증언을 간추리고 약

간의 고찰을 덧붙여 소개할 따름이며 상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이 腹藏을 간직하고 있는 佛像은 香木으로 빚은 높이 五二cm의 坐像이다. 이전에는 어떤 인연인지 무명이 잠시 모셨다가 다시 高山寺에 奉安한 佛像인데 廢佛되어 없앨려는 것을 마침 昔泉스님이 調査하게 되어 貴重한 腹藏을 發見하고 다시 法堂에다 奉安하였다 한다. 廢佛되기 直前에 애써 좋은 作品을 남겨준 昔泉스님께 감사할 드린다.

× × ×

가장 뒷편의 頭部에 舍利遺物이 있고 中心部 바로 위에 永嘉禪師證道歌、心部에 종으로 된 喉鈴筒、이 筒을 發願文과 觀音 禮儀文이 앞뒤쪽으로 싸고 있으며 그 아래로 金剛經、珠玉類가 차곡 차곡 쌓여 있다.

#### (1) 佛舍利

佛頭部에 佛舍利를 奉安한 것은 佛腹藏을 넣기 시작한 때 보다 오래된 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北魏時譯의 佛像量度經에 「像頭部에 佛舍利를 넣기도 한다①」라는 말로서도 짐작된다.

주황색과 하늘색 비단 겹보재기 속에 琉璃製舍利瓶이 있다. 병은 높이 二cm 넓이 一·九cm로 아래 위로 구멍(徑七mm) 四mm)이 뚫렸다. 양입구는 香木으로 막았다. 구멍속에 흰색 三분은색 一 黠色 一 노란색 二 等 七粒의 舍利를 넣고 있다. 이것은 諸佛腹藏壇儀式에 보이는 舍利 七粒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으며 이 舍利는 내 생각으로는 同書에 「以水晶琉璃等寶代用之」라 했듯이 유리로써 모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같은 글에는 喉鈴筒속에 奉安된다 했는데 여기서 頭部에 安置된 것은 옛식 이 남아서인지도 모르겠다.

#### (2) 喉鈴筒

이 筒은 주황색, 하늘색, 흰색, 자주색, 황색의 五色비단에 싸여 五色실로 묶었는데 金、銀製가 아닌 韓紙로 그냥 싸고 있다. 紙表面에 東西、南黑이라 朱書였는데 方位의 表示인지 眞心種子를 나타내는지는 알 수 없다. 韓紙속에는 東、西、南、北、中의 다섯 묶음이 結合東되고 그 가운데 內喉鈴筒이 놓였다. 이 筒이야말로 原喉鈴筒이며 이 속에 腹藏遺物이 奉安된다. 그러나 지금은 다만 東、西、北、南、中을 가리키는

方、圓、三角、半月、圓의 五方鏡만이 「四方鏡筒外隨方懸之中方鏡筒底安之」라 한 腹藏壇儀式<sup>②</sup>이나 蠶<sup>③</sup>의 말과는 달리 그냥 쌓여 있을 뿐이다. 筒은 金銅製인듯 하며 원통형으로 胴體에 伏八葉장식이 있고 底面에 八葉의 座板이 있다. (全高5cm 上徑六·五mm 下徑二·一cm) 다섯 묶음의 內遺物은 腹藏關係諸冊의 表現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다.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中央 첫만을 例로 들어 보겠다.

묶음의 가장 윗편에 『衣』라 朱書한 황색 능직비단이 있다. 소위 黃絹衣輪이다. 그 아래 韓紙 두겹을 瓶과 같이 오려 水淨瓶이라 먹으로 썼다. 말할 필요도 없이 白色水晶寶瓶에 해당한다. 甌子가 있고 琥珀이 있다. 琥珀은 구멍을 銀板으로 장식한 有孔朱紅色 구슬이다. 四○粒의 乳香, 수백粒의 黃芥, 한오라기의 黃線(비단실), 黃絲이라 쓴 비단쪽(腹藏壇儀式的 黃彩幡), 黃紙로 오린 杆, 白蓋(無文비단), 黃帛(黃色비단) 寶星矩金(?)이라 쓴 木皮(이것은 아마도 知黨 矩舍草임이 틀림없을듯 하다) 三粒의 牛黃, 時花, 白丹, 搔(櫻)樹葉이 차례로 놓여 있다. 報身, 化身字가 보이지 않고 白丹이 있는 것이 古書와 다를뿐 거의 같다.

(3) 書冊

① 永嘉禪師證道歌

① 千人同發願文·길이 七m 넓이 一八cm 一二帳을 接完한 두루마리로 그 끝에 證明師處仁等과 佛像大化主 釋閑, 또는 大木智玄등과 같은 人名과 「嘉靖二十二年 大歲癸卯八月」이라는 刊記를 붙은 글씨로 적었다. 嘉靖二十二年은 中宗 三十八年 즉 一五四三年이 되므로 이佛像은 李朝 前期에 造成되었음을 明白히 알 수 있다.

② 觀世音菩薩禮·儀文·禮文一帳, 儀文一五帳 大功德主 孝寧大君이 보이니 表紙가 없어지고 刊記年代도 없다.

③ 眞言集·韓紙六張의 산스크리트語로 된 것

④ 金剛般若波羅密經· 넓이 二二·五cm 各面四二行의 五面, 密直同知 春秋館事 鄭公權의 跋文이 있다.

(4) 珠玉類

좁쌀정도의 珍珠(?) 八粒과 大寶珠明色 유리기슬과 雜珠一粒, 貝珠一粒, 그리고 麻製 노끈에 꿰 유리기슬 一連 및 韓紙노끈에 묶은 구슬 一連 등 많은 구슬이 있다. 이러한 구슬은 腹藏壇儀式이나 其他例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다.

× × ×

佛像은 佛敎徒의 正성과 신앙이 內實되어 있는 精神性(佛格)의 具現體라는 점에서 아무도 異論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佛格의 具現은 中世로 내려오면서 부터는 像 자체에서 보다 오히려 佛腹藏에 두려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佛敎造成過程 中에서도 온갖 正성을 기우리기야 했지만 腹藏安奉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했다. 宗派의 敎理와 時代 또는 願者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그 內容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腹藏에 대한 注目은 彫刻史研究의 基本이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佛敎史研究에도 크나란 도움이 될 것이다.

註① 「佛敎量度經(新修大藏經 一四一九)

② 「佛腹藏壇表式」(造像經道光四年檢帖寺板)

③ 蠶○集(正祖十六年鈔本), 閔泳珪 「長谷寺高麗鐵佛腹藏遺物」(人文科學 一四, 一五合輯)에도 마찬가지로

洪城郡 八卦里 出土 磨製 石器類

崔 夢 龍

一, 지난 一〇月 忠淸南道 洪城郡 八卦里 풀무골에 掘리 現在 그곳 六六五番地에 居住하는 朱鑿魯氏가 院長으로 在職하고 있는 풀무學院(六六四番地) 新築工事 及 運動場 整地作業時 出土되어 保管中인 磨製石器類 一群을 實見할 機會를 얻게 되었다.

이들 一群의 遺物은 三角形有孔石刀, 半月形石刀, 石鏃, 石劍, 石斧의 四種類에 걸쳐 合二二點이나 되지만 遺物스런게도 六, 七年前 出土